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SIN: 신조선가지수 133p, 중고선가지수 121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33p(+1p, WoW), 중고선가지수는 121p(+5p, WoW)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현대삼호중공업이 Euronav로부터 30만DWT급 Scrubber형 VLCC 2+1척과 Sonangol로부터 15.8만DWT급 탱커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대우조선해양은 Avance Gas로부터 9.1만CBM급 VLGC 2척과 MOL로부터 17.4만CBM급 LNG선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은 1.8만CBM급 LNGBV를 수주했다고 보도됨. (Clarksons)

한국조선해양, 유조선 수주

한국조선해양은 앙골라 국영 석유회사 Sonangol사로부터 수에즈막스 탱커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6,850만달러이며 인도기한은 2023년 말 까지라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Equinor, 탱커 7척 발주 서둘러

노르웨이 에너지기업 Equinor가 용선 조건으로 아프라막스 탱커 4척과 LR2탱커 3척 등 7척 발주를 급하게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됨. 조선소 슬롯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선가도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Equinor가 원하는 선박은 LNG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라고 보도됨. 조선사들이 오피를 제출할 기한은 6월 2일 까지라고 알려짐. (선박뉴스)

대한조선, 탱커 4척 수주 상담

대한조선이 벨기에 선사 Euronav와 수에즈막스 탱커 2+2척에 대한 수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됨. 발주처는 이미 수에즈막스 2척을 건조하고 있으며 암모니아-ready 시스템을 추가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알려짐. Euronav의 현 수에즈막스 탱커 선대 평균 선령은 11.7년으로 시장의 평균 10년 보다 높은 실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일 조선 업체들 속속 뭉쳐

일본의 츠네이시선박이 미쓰이조선 지분 49%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됨. 한편 이마바리조선은 최근 JMU 지분 30%를 인수했으며 오시마조선은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Koyagi Shipyard를 매입하기로 했다고 알려짐. 미쓰이조선은 Chiba야드를 매각하기 위해 오노미치조선이 주도하는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알려짐. (선박뉴스)

두산인프라코어, 카타르에서 굴착기 102대 수주

두산인프라코어가 카타르 현지 대형 건설회사로부터 굴착기 102대를 수주했다고 25일 밝힘. 이번 수주는 지난해 카타르 굴착기 시장규모(450여대)의 23%에 달하는 대형 수주건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카타르 시장에서 단일 고객으로부터 수주한 물량 중 가장 크다고 보도됨. (파이낸셜뉴스)